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08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08  
2020 년 11 월 08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39010114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1 월 08 일

# 차례

- |   |   |
|---|---|
| 1. [선거참패… 부정선거음모론… 대안우파… 킥, 머리가!] . . . | 3 |
| 2. [역병신이건희] . . . . .                   | 4 |
| 3. [무슨마야하시길래이런생각하셨어요?] . . . . .        | 5 |

## 1. [선거참패… 부정선거음모론… 대안우파… 크, 머리가!]

미국대선에서도 널드트럼프가 조바이든에게 패배했다. 일단은 선거가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나 꿀잼이어서, 꼭 주간 단평에 미국 대선 얘기를 쓰고 싶은데, 일요일까지 결론이나지 않을까 가슴졸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바이든의 승리가 선언되었다. 솔직히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빨간 자본가 파쇼가 세계 대통령이냐, 파란 정치꾼 파쇼가 세계 대통령이냐는 어떠한 것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건, 월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 할 거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할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라니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에서 대규모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며,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지역에 대한 법적 쟁송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행정력이 1980년 대수준이었음은 차치하고,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에 과연 대규모 부정 선거가 가능한 것인가도 차치하더라도, 미국 대선의 규칙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 역시 차치하더라도, 그의 혹을 제기한 본인부터가 4년 전에 그 선거의 규칙을 통해 대통령이 된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지만 트럼프의 땅강은, 그리고 그 땅강을 받아안은 소위 ‘대안우파’들의 난동은, 어쩐지 기시감이 든다. 올 상반기 총선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하고, 죽은 자식 고환을 애무하기를 포기하지 못한 채 총선이 문재인과 중국 이작당 한부정 선거였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는 어느 반도의 ‘대안우파’들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다. 아니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그 시스템의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대적 행정 체계에서 대규모 부정 선거가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낮아야 대안우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대선이라는 촌극에서 가장 멋진 사실은, 트럼프가 땅강을 부려 대통령에 대한 결정권을 연방대법원으로 넘기고, 연방대법원이 그 결정책임을 하원으로 떠넘기면, 수리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총 투표 수에서도 있고, 선거인단 확보수에서도 있지만, 어쨌든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

스탈린 대원수께서 교시하셨듯,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허울 좋은 민주주의 건, 절차적 민주적이 건 무엇이건, 결국 그 승자는 시스템인 것이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B%AF%B8%EB%8C%80%EC%84%A0&where=news&ie=utf8&sm=nws\\_hty](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B%AF%B8%EB%8C%80%EC%84%A0&where=news&ie=utf8&sm=nws_hty)

## 2. [역병신이건희]

이건희가죽은지어언 2 주가지났다. 그런데이건희는사실죽지않고 살아있었나보다. 우리의곁에역병의신, 역병신 (疫病神) 으로서말이다. 지난 27 일증상이발현된환자가나타났던것이다. 즉, 이건희가죽은지고작 1 주일도되지않아서그현장에코로나-19 감염자가나타났다는이야기다.

정권은 누누이 고했다. 집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말라고, 단순히 지양하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었다. 대대적인 ‘탄압’으로 까지 비춰질 수준으로 강력한 힘을 통해 막아섰다. 지난 패션들의 집회 시도를 경찰 차벽으로 막은 것이 그 예시이다.

그런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운이 좋게도 그 장소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나보다. 거기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징조는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조문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정권의 지지자들은 대대적인 유탸과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 루션을 포기했다고 말이다.

그리고 어언 10 월이 되어 이건희가 죽었다. 이건희가 죽은 뒤 장례식은 시작됐고, 수많은 정계 유명인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 이 모여들면 위험하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렇게 나’ 안전을 중시하는 정권이 이건희의 장례식에 정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드는 것은 막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이기에 허용했다는 것은 핑계고 말이다.

어랍쇼, 이건희가 죽은 장례식장에 집단감염이 퍼지기 시작했다! 참기 이하다. 실외에서의 집회는 분명 집단감염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내에서의 모임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허용해주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이건희가 정말로 역병의 신이 되어 장례식장에 나타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인가?

정부는파쇼건사회주의자건모든인민의집회를막아서거나축소하려는시도를그만두고, 자신들에게이익이되는부르주아, 정재계인사들에대한일방적싸고돌기를그만하라. 그리고집회와단결의문제를인민에게맡기고, 당신들은알아서꺼져주길바란다. 그렇지않으면역병신(疫病神)이것희회장님께서그힘을사용하여당신들을단죄할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3251\\_3252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3251_32524.html)

### 3. [무슨마약하시길래이런생각하셨어요?]

서울시가 '동대문-충무로-남산-명동-남대문시장'을 연결하는 퇴계로를 보행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미 명동역인 근퇴계로 2가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인 근광회동사거리까지 1.5km 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말도로 공간 재편 사업을 완료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6~8 차로를 4~6 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3 배까지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물론도심을시민들이편히이용할수있는것,그리고녹지를조성해도  
심대기오염에대응하는것자체는필요한일일것이다.하지만실제로이구  
간을늘거나쳐야하는이들에게도이것이반가운것인지는의문이아닐수  
없다.이구간을늘이용하는이들은알겠지만,이구간은주중주말할것없  
이언제나트럭,오토바이등으로가득한공간이다.그리고그들은늘짐을  
한껏싣고다닌다.이것이뜻하는것이무엇인가?이공간을경제의터전으  
로삼고있는이들이늘가득하다는것이다.

때문에서울시의위와같은계획이정녕시민들의도심접근성을높이는  
지여부도불분명하며, 나아가주요이동구간의차선을좁히고보행로를3  
배가량확장하는것은이구간을더욱지옥같은통행난으로몰아넣는결과  
를초래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를금할수없다. 제발공무원식탁상행정  
으로사람들을괴롭히고서자화자찬하지말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